

## 한중 경제 무역 30년의 성과와 도전

劉宇

중국 중산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 Thirty Years of China-Korea Trad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Liu Yu<sup>a</sup>

<sup>a</sup>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un Yat-sen University, China

Received 07 October 2022, Revised 14 December 2022, Accepted 19 December 2022

### Abstract

China and Korea are good neighbors and partne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two countries have made promising achievements in political, economic, and humanistic exchanges for over three decades. In particular,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have yielded fruitful results,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There are also unavoidable issues in the rapid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look back on the past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China and the Korea. With the upgrading of China's industr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level, the bilateral trade relationship has gradually shifted from a complementary one to a competitive one. It is essential that both countries keep in mind the mutually beneficial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and make du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world economy.

**Keywords:** China-Korea Diplomatic Relations, Trade Relations, Trade Imbalance, Win-win Economic Cooperation

**JEL Classifications:** F10, F13, F15, F63

<sup>a</sup> E-mail: [rujam@163.com](mailto:rujam@163.com)

## I. 머리말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정상들은 원대한 비전을 품고 양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잘 통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 공동 번영 촉진에도 기여하였다. 30년간의 왕래 과정 가운데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교류의 성과가 가장 크다. 2021년 양국 간 수출입 무역액은 3,015억 4,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수교 초기 무역액 63억 8,000만 달러의 47.3배이다. 중국은 2004년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된 이후 현재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가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 되고 서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이자 제2의 투자 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중요한 투자 원천국이 되었다. 2015년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발전을 위해 더욱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 경제의 꾸준한 발전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되었고 양국의 일부 산업 분야에 있어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상품 무역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한중 경제 무역 관계에서 상품 교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투자 무역 및 서비스 교역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관련 통계자료도 많지 않아서 이에 관한 연구는 있기는 하나 성과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상품 무역에 관한 연구 성과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연구유형은 포괄적인 연구이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Xu, Wen-jing (2002)은 양국의 무역, 투자, 산업협력 등 3가지 측면으로 지난 10년간의 쌍무 무역거래를 정리하여 향후 학자들의 연구에 참고자료로서 기여하였다. 수교 15주년 때 Piao, Guang-ji

(2007)는 양국 무역이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불균형이 심해 중국 측이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 원인은 두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것과 한국의 對 중국 투자가 많아서 중국으로 설비나 부속품을 많이 운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수교 20주년에는 Hu, Yi and Shen, Ming-hui (2012)의 연구에서 한중 경제 무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두 경제국이 서로의 시장에 대해 가진 큰 수요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외부로부터 형성된 중국 시장 수요에 대한 무역 이전 효과 때문이라고 하였다. Xu, Guang-yao and Liu, Xiao-ning (2013)도 세관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교 20년 동안 양국 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한중 무역은 30년간의 발전을 거쳐 비록 매우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심각한 중국 측의 무역적자, 양국 간 무역의 구조적 불균형, 무역 마찰의 빈번한 발생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하였다. Su, Ke-wu (2002)는 논문에서 중국 측 무역적자의 원인을 양국 간 수직형 무역 특징, 중국이 대외무역 수출에 대한 재정지원 폐지,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 지속, 중국의 대한(對韓) 수출기업 제품의 구조적 결함, 한국의 중국제품 수입 제한 등 5가지 이유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Hu, Jun-fang (2007)은 한중 무역적자의 원인에 대해 첫째,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점, 둘째, 한국 회사가 노동 집약적인 가공과 제조를 중국으로 옮긴 점, 셋째, 중국의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제품이 한국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학자들 또한 한중 무역적자의 원인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양국 무역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Han, Bing (2016)은 한중 무역은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다소 둔화하여 주기적으로 파동이 나타나며 쌍무무역 수출 상품 구조가 일치하고 쌍무무역 관계의 결합도가 강세에서 약세로 바뀌어 양국 무역의 상호보완성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한중 경제 무역 교류 과정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

**Table 1.** Korea-China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1992-2021 (US\$, %)

Year	Total import and export		China Exports to Korea		Korea Exports to China		Balance of payments
	Amount	Rate of growth	Amount	Rate of growth	Amount	Rate of growth	Amount
1992	63.8	85.4	37.2	8.3	26.5	164.7	10.7
1993	90.8	42.3	39.2	5.5	51.5	94.1	-12.2
1994	116.7	28.5	54.6	39.0	62.0	20.4	-7.4
1995	165.4	41.3	74.0	35.5	91.4	47.4	-17.4
1996	199.2	20.4	85.3	15.4	113.7	24.4	-28.3
1997	236.9	18.9	101.1	18.5	135.7	19.3	-34.5
1998	184.3	-22.2	64.8	-35.9	119.4	-12.0	-54.6
1999	225.5	22.3	88.6	36.7	136.8	14.6	-48.1
2000	312.5	38.5	127.9	44.3	184.5	34.9	-56.5
2001	314.9	0.76	133.0	3.9	181.9	-1.4	-48.8
2002	411.5	30.6	173.9	30.8	237.5	30.6	-63.5
2003	570.2	38.5	219.1	25.9	351.0	47.8	-132.0
2004	793.5	39.1	295.8	35.0	497.6	41.7	-201.7
2005	1005.6	26.7	386.4	30.6	619.1	24.4	-232.6
2006	1180.2	17.3	485.5	25.6	694.5	12.2	-209.0
2007	1450.1	22.8	630.2	29.8	819.8	18.0	-189.5
2008	1683.2	16.1	769.3	22.1	913.8	11.5	-144.5
2009	1409.5	-16.2	542.4	-29.5	867.0	-5.1	-324.5
2010	1884.1	33.6	715.7	31.9	1168.3	34.8	-452.6
2011	2206.2	17.1	864.3	20.8	1341.8	14.8	-477.5
2012	2151.1	-2.49	807.8	-6.5	1343.2	0.1	-535.3
2013	2289.2	6.4	830.5	2.8	1458.6	8.6	-628.1
2014	2353.7	-1.5	900.8	8.5	1452.8	-0.4	-552.1
2015	2273.7	-3.3	902.5	0.2	1371.2	-5.6	-468.7
2016	2114.1	-7.0	869.8	-3.6	1244.3	-9.3	-374.5
2017	2399.8	13.5	978.6	12.5	1421.2	14.2	-442.5
2018	2686.1	11.9	1064.8	8.8	1621.2	14.1	-556.3
2019	2434.3	-9.3	1072.2	0.7	1362.0	-16.0	-289.7
2020	2414.5	-0.8	1088.8	1.5	1325.6	-2.7	-236.8
2021	3015.4	28.1	1386.2	27.3	1629.2	22.9	-242.9

Not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his data only includes inl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었는데 Li, Xiao-feng and Zhang, Wei (2006)는 한중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이 한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중 경제 무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며 한중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였다. 본 연구는 중국학자의 입장에서 한중 경제 무역 30년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는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방법은 한중 간 경제 무역 협

력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와 데이터, 그리고 학술 연구 성과들을 검토 및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한중 쌍무무역 30년 발전의 총체적인 상황을 3단계로 나누어서 논하고, 3장에서는 한중 양국 무역 관계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검토하며, 4장에서는 한중 무역의 새로운 구도 구축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고, 5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맺는다. 비록 미약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한중 무역 30년의 개관

한중 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로 정치, 경제, 인문 교류 등 면에서 모두 비약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경제 무역 관계는 더욱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1년 양국 간 수출입 무역액은 3,015억 4,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수교 초기 무역액 63억 8,000만 달러의 47.3 배이다(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database of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무역은 연평균 17.9%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대외무역의 연평균 성장률 13.3%는 물론 한국 대외무역의 연평균 성장률 7%를 크게 웃돌았다. 눈부신 성과를 거둔 양국 경제 무역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상품 무역 위주로 하여 세 단계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 1. 초기 발전기간(1992년~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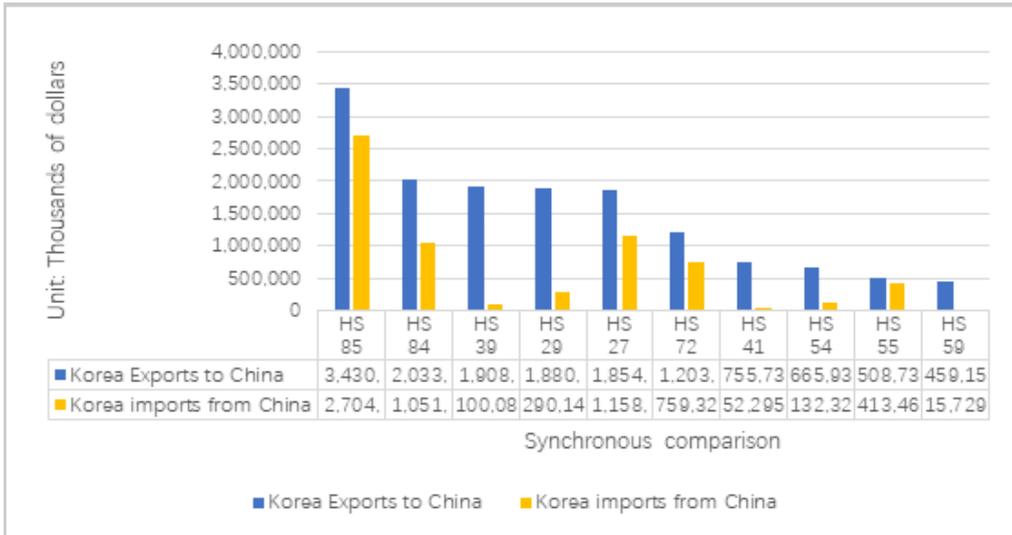
1992년 이전에 중국과 한국은 홍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량의 상품을 교역하였으나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의 왕래가 시작되었고 양국의 무역 관계도 활발해졌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2년 63억 8,000만 달러였던 한중 무역액은 이듬해 90만 8,000달러로 42.3% 증가하였다. 1994년 양국

의 무역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7년에는 200억 달러, 2000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1992년~2001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IMF(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2% 감소했던 98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27.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중 상품 무역이 이처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두 경제체제가 수교 이후 서로의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공업 완제품을 대량 수입해야 했고, 한국의 제품은 일본, 미국, 독일 등 나라에 비해 품질은 뒤쳐졌지만, 가격은 적당했기에 당시 중국의 시장 수요에 적합했다. 한국은 전후(戰後) 30여 년의 노력을 거쳐 과학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시킴으로 신형 공업화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의 원자재 및 농림 수산물과 방직품 등의 노동 집약형 1차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수교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첫 번째 10년의 쌍무무역 관계는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보였고, 산업의 상호 보완 관계의 특징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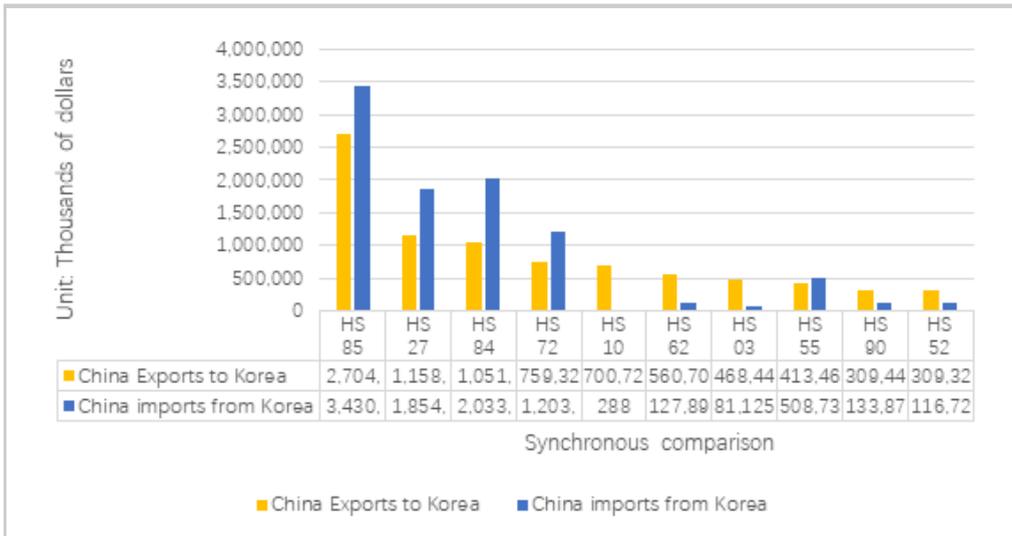
수교 초기, 수출입 상품구조를 보면 중국은 주로 한국에 농부 산물, 방직 품을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 전자제품을 수입했으며, 양국은 주로 자원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산업 간 무역의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상위 10개 품목은 HS85(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HS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HS39(플라스틱 및 그 제품), HS29(유기화학품),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 물), HS72(철강), HS41(원피와 가죽), HS54(인조 필라멘트,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 등), HS55(인조 스테이플 섬유), HS59(침투·도포 등 공업용 섬유제품) 순이었다(See Fig.1). 중국의 한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HS85(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HS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HS72(철강), HS10(곡물), HS62(의류와 그 부속품), HS03(어류, 갑각류 등),

Fig. 1. Top 10 Items Exported by Korea to China in 2000



Note: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Fig. 2. Top 10 Items Exported by China to Korea i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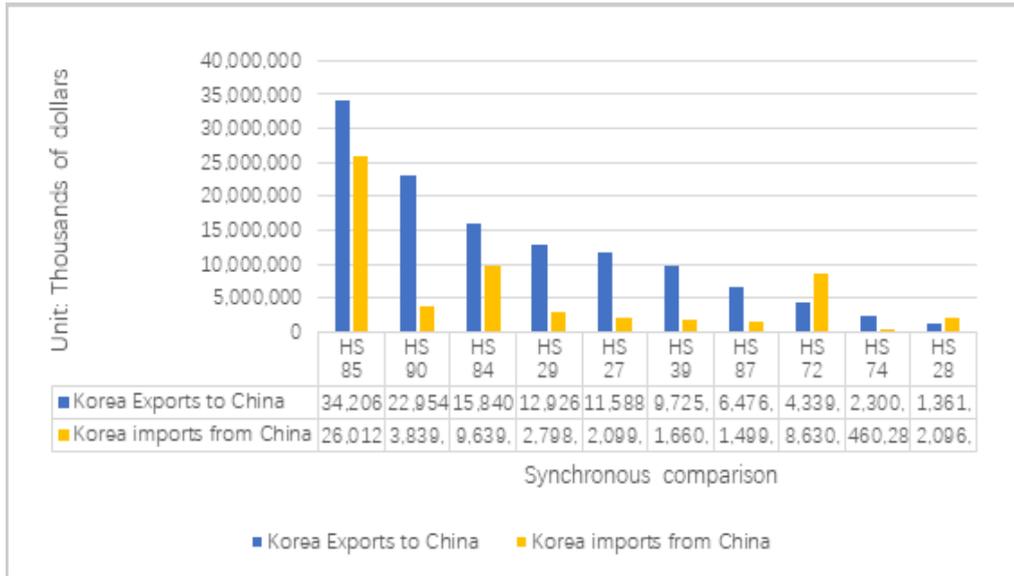
Note: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HS55(인조 스테이플 섬유), HS90(광학기기정밀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HS52(면) 등으로(See Fig. 2) 산업 내 무역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al database>).

## 2. 고속 성장기간(2002년~2011년)

20세기 90년대 초의 한중 무역은 주로 수직적인 무역 분업에 치중하였으며,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90% 이상이 공산품이었

Fig. 3. Top 10 Items Exported by Korea to China i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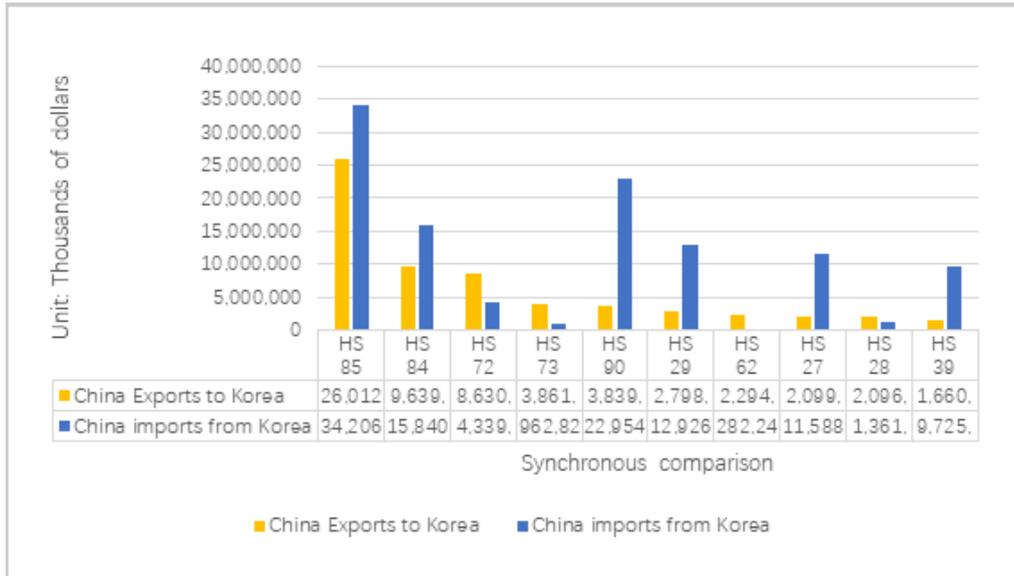
Note: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점차 수평적인 무역 산업으로 변화되었으며,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여전히 공산품이 위주이지만,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커졌다. 수교 후 두 번째 10년간의 양국 교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crisis) 위기 여파로 2009년 16.2% 감소했을 뿐 다른 해에는 연평균 22.6% 증가함으로 200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1,005억 6,000만 달러, 2011년 2,206억 2,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See <Table 1> for data).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과 세계와의 연계가 확대되었고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중국 경제의 고속 발전도 한중 양국의 상품 무역 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세계적인 가공공장'이 되어 생산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중 무역 구조가 수직적인 산업 간 무역에서 수평적인 산업 내 무역으로 바뀌고 있다(Xu, Guang-yao and Liu, Xiao-ning, 2013, p.156).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함량이 높은 제품을 대거 수입하면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크게 늘었고 2002년 63억 5,000만 달러 적자에서 2011년 477억 5,000만 달러로 10년 사이에 7.5배로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HS85(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HS90(광학기기·정밀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HS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HS29(유기화학품),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 물), HS39(플라스틱과 그 제품), HS87(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HS72(철강), HS74(구리와 그 제품), HS28(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 등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순이었다(See Fig. 3).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품목은 HS85(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HS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HS72(철강), HS73(철강의 제품), HS90(광학기기·정밀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HS29(유기화학품), HS62(의류와 그 부속품),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 등), HS28(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 등), HS39(플라스틱과 그 제품) 순이었다(See Fig. 4). 각각 수출

Fig. 4. Top 10 Items Exported by China to Korea in 2011



Note: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액 상위 10위 품목 중 두 개가 같을 정도로 산업 내 무역 특성이 뚜렷해졌다. 하지만 중국이 477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을 보면 중국 제품의 기술 함량이 한국보다 많이 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al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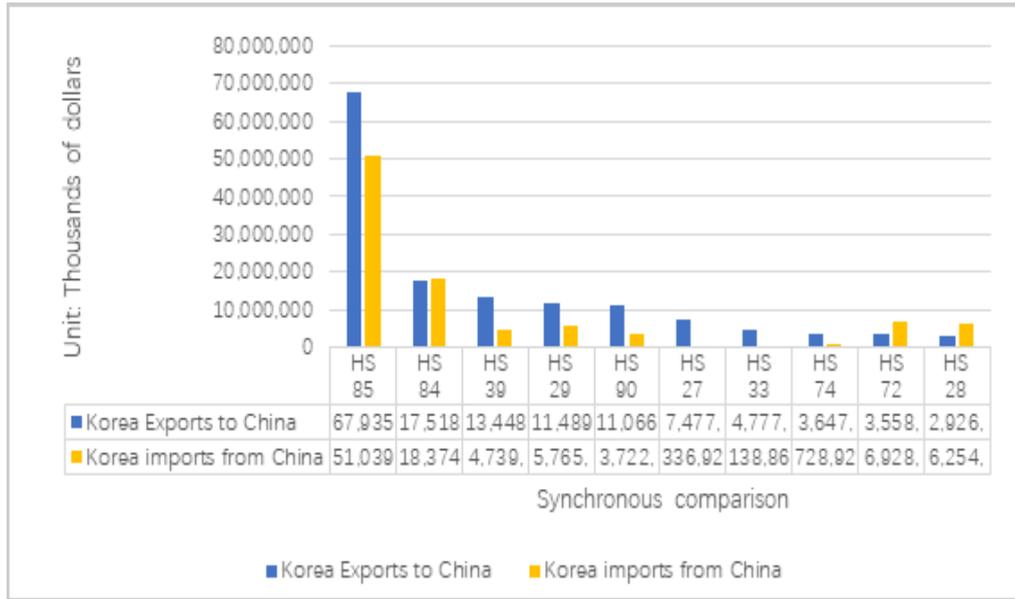
### 3. 둔화 조정기간(2012년~2021년)

한중 경제 무역은 두 번째 10년간의 고속 성장을 거친 후 세 번째 10년간은 안정된 발전 단계에 들어섰고 무역액은 연평균 2,400억 달러, 평균 성장률은 약 3.5%였다(Calculation based on the figures in <Table 1>). 이러한 성장속도는 쌍무무역 발전 법칙에 부합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적자가 가장 컸던 2013년에는 628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300억 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The data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able 1>). 무역 성장의 둔화와 중국 측의 심각한 적자는 수교 후 세 번째 10년

양국 상품 무역 관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2012년에 한중 자유무역지대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3년여의 협상과 논쟁을 거쳐 2015년 12월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FTA를 체결한 이후 쌍무무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서로 간의 의존도가 증가하여 경쟁 강도도 계속 심화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2021년의 경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상위 10개 품목은 HS85(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HS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HS39(플라스틱 및 그 제품), HS29(유기화학품), HS90(광학기·정밀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 물), HS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 향료와 화장품 등), HS74(구리와 그 제품), HS72(철강), HS28(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 등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순이었고(See Fig. 5),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HS85(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HS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HS72(철강), HS28(무기 화학품, 귀금속, 희토류 등), HS29(유기화학

Fig. 5. Top 10 Items Exported by Korea to China in 2021



Note: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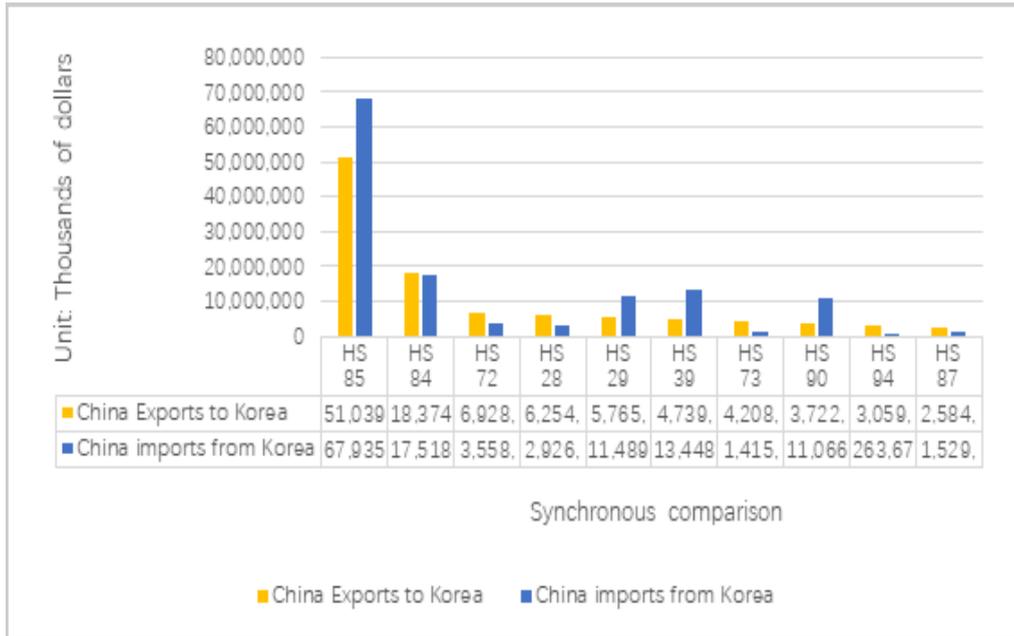
품), HS39(플라스틱과 그 제품), HS73(철강의 제품), HS90(광학기기·정밀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HS94(가구, 침구·매트리스 등), HS87(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순이었다(See Fig. 6). 중국의 산업구조와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과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동질화되고, 동일한 제품의 경쟁이 확대되면서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HS85(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은 수년간 중국과 한국 간 화물무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HS85(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상품의 양은 1,061,425.7톤, 금액은 510억 3,900만 달러였다. 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HS85(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상품은 물량 249,556.9톤, 금액 679억 4,000만 달러로 중국 측 적자 169억 700만 달러는 2021년 양자 간 무역에서 중국 측 적자 242억 9,000만 달러의 69%를 차지했다(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al database)). 이는 중국의 동종 제품이 아직 산업 사슬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과학 기술 수준이 더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 한중 양국 30년간의 쌍무무역을 10년간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매 10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제목에 적었을 뿐 10년간 모두 고속 성장했다거나 또는 모두 둔화했다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10년은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이 신속하게 발전하여 가파른 성장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의 무역 관계는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다. 두 번째 10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와의 연계가 많아지고 경제가 고속 성장해 한중 쌍무무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2002년~2006년에는 연평균 30% 정도의 고속 성장세를 보였고 양국 무역 관계는 날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음으로 쌍무무역의 고속 성장세가 꺾였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첫 번째 10년에는 서로 보완적이던 관계가 일부 분야에서 점차 경쟁적인 관

Fig. 6. Top 10 Items Exported by China to Korea in 2021



Note: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계로 바뀌고 있다. 고속 성장을 거친 후 세 번째 10년에는 쌍무무역의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몇 해 동안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기간에 무역 성장의 둔화와 중국 측의 심각한 적자가 수교 후 세 번째 10년 양국 무역 관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 Ⅲ. 한중 양국 무역 관계의 주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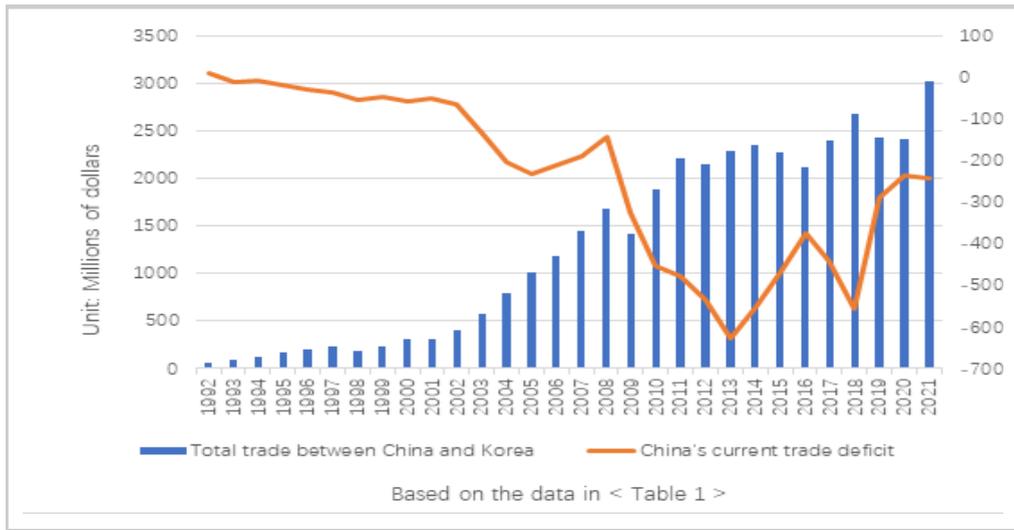
30년간 양국의 무역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무역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양국 간에는 치열한 시장경쟁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무역마찰이 때때로 발생하곤 하였다. 앞으로 양국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1. 무역 불균형의 장기화

수교 30년간 쌍무 경제 무역 협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호 의존도도 높아졌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무역적자에 처해있는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Table 1>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1992년에 중국 측의 흑자는 겨우 12억 2,000만 달러에 그쳤고, 1993년부터 연속해서 해마다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3년에는 적자 최고치 628억 1,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국 경기 침체로 적자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200억~30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 발생지가 되었다. 한중 무역 불균형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중국과 한국은 산업 발전 단계가 다르

Fig. 7. Trade Status of Korea and China in the Past 30 years and China's Deficit



Note: Based on the data in Table 1

고 글로벌 산업 사슬에서 처한 위치도 차이가 있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기술 집약형 상품이지만 한국은 중국에서 대부분 노동집약형 또는 자원형 상품을 수입한다 (Gui, Xiu-e, 2017, p.119). 2021년 한중 쌍무 무역에서 양자 간에 수출량이 가장 많은 HS85 (전기기기과 이들의 부분품·부속품)품목의 경우, 같은 품목에서 중국이 169억 700만 달러(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al database>) 적자를 낸 것은 한국에 수출한 제품의 부가가치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제품의 부가가치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중국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때 투자 기업은 주로 한국 내에서 공급하는 설비, 원자재, 부품 등에 의존하여 투자 기업이 필요한 소재, 부품을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생산해 낸 완제품은 소수만 한국으로 역수입하고 대부분은 제3국으로 수출한다. 이러한 상황도 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셋째, 한국은 60년대에 '수출 제일주의 정책'이라는 기본 국책을 수립한 이래 광범위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입해야 할 제품은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에서 고품질의 제품을 수입하고, 기술력이 낮은 제품은 가격이 더 낮은 국가에서 수입한다(Zhang, Chuan-li and He, Shen, 2019,p.254). 그 결과 대 중국 수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양국 간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넷째,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엄청난 수요 시장이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은 인구가 적고 시장이 협소해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한정되어 있다.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한국의 협소한 시장 차이 역시 한중 무역에서 중국에 적자가 생긴 원인이다.

## 2. 무역 경쟁의 지속적인 심화

경쟁은 경제 무역 발전이 끊임없이 심화되는데 있어 필연적인 속성이다. 한중 양국의 쌍무

**Table 2.** Top 5 products for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00 and 2021

Year Ranking	2000		2021	
	China Exports to Korea (HS Code)	Korea Exports to China (HS Code)	China Exports to Korea (HS Code)	Korea Exports to China (HS Code)
1	HS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HS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HS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HS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2	HS27 (Mineral fuels etc)	HS84(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etc)	HS84(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etc)	HS84(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etc)
3	HS84(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etc)	HS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HS72(Cast iron, iron and steel)	HS39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4	HS72(Cast iron, iron and steel)	HS29 (Organic chemicals)	HS28 (Inorganic chemicals; inorganic or organic compounds etc)	HS29 (Organic chemicals)
5	HS10 (Cereals)	HS27 (Mineral fuels etc)	HS29 (Organic chemicals)	HS90 (Optical, precis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Note: 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al database>,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무역 경쟁은 주로 상호보완적 무역 제품의 수출입 비중이 변화한 데서 나타난다. 수교 초기 중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1차 제품, 농부산물, 방직품이 위주였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가 개선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은 주로 전자, 기계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된 반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첨단 기술 제품에 치중되어 왔다. 두 나라의 수출입은 동질화되어 갈수록 경쟁력이 더욱 심해졌다(Hu, Yue and Wang, Sheng, 2019. p.103). 2000년과 2021년 한중 양국이 상대국에 수출한 금액 상위 5위 품목을 <Table 2>를 통해 비교해 보면 많은 상품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일부 전통산업(반도체, 컴퓨터 등)이 빠른 속도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내는 HS84(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품목은 2021년에 8억 5,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al database>).

수교 초기에는 양국의 자원부와 경제 발전

단계가 달라서 중국이 한국에 1차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에서 공업 완제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산업 간 무역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양국 간의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종전에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발전하여 양자 무역 관계도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對中) 경제심이 통상마찰의 한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법을 찾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 3. 양국의 무역장벽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농업과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에서 2.9%로 하락하여 연평

**Table 3.**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hibited import and export items

1. Articles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country	2. Restrict entry articles	3. Printed matter, audio and video products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country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ll kinds of weapons, simulated weapons, ammunition and explosives;</li> <li>2. Counterfeit currency and counterfeit securities;</li> <li>3. Printed matter, film, photograph, record, film, audio cassette, video cassette, laser disc, computer storage media and other articles harmful to Chin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morals;</li> <li>4. Various potent poisons;</li> <li>5. Opium, morphine, heroin, cannabis and other addictive narcotics and psychotropic drugs;</li> <li>6. Animals, plants and their products with dangerous bacteria, pests and other harmful organisms;</li> <li>7. Food, medicine or other articles that are harmful to the health of humans and animals, come from epidemic areas and can spread diseases.</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Radio transceiver, communication security machine;</li> <li>2. tobacco, alcohol;</li> <li>3. Endangered and precious animals and plants (including specimens) and their seeds and propagation materials;</li> <li>4. National currency;</li> <li>5. Other articles restricted by the Customs.</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Opposed to the basic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li> <li>2. Endangering national unity,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li> <li>3.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or harming national honor and interests</li> <li>4. Inciting ethnic hatred, ethnic discrimination, destroying ethnic unity, or infringing on ethnic customs and habits</li> <li>5. Preaching cults and superstitions</li> <li>6. Disturbing social order or social stability</li> <li>7. Promoting obscenity, gambling, violence or abetting crimes</li> <li>8. Insulting or defaming others or infringing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li> <li>9. Harmful to social morality or excellent national cultural traditions</li> <li>10. Where entry into China is prohibited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li> </ol>

Not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huangpu.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56445/index.html>

균 6%포인트씩, 농업인구는 49.5%에서 7.6%로 연평균 5.2%포인트씩 떨어졌다(Network documentary, 2020). 농가의 교역 환경이 악화 되면서 한국 농민과 도시 주민의 소득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으며(Data source: Baidu Baike) 이런 상황에서 농협과 농민들은 다른 나라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데 불만을 품어 시위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농업 문제는 역대 한국 정부의 난감한 사안이 되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장벽 조치가 중국 농부산물의 한국 시장 진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수입

조절 관세를 부과하는 27개 농산물과 경공업품 가운데 17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어 있으나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의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이 한국 시장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관세 장벽 외에도 한국의 수입검역 및 위생 기준이 높은 것으로 인해 비관세적 장벽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Ma, Chang-e, 2004. p.24). 이런 조치들은 중국의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과 식품 첨가제, 의약과 제약 원료 등과 같은 상품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중 간에 일어난 가장 큰 통상 마찰로 2000년 마늘 파동과 2005년 김치 파동이 아직 우리들의 기

역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가 자국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늘 파동에 대응하여 중국에서도 한국산 휴대전화기(차량용 포함)와 폴리에틸렌 등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고, 김치 파동에 대응하여 중국에서는 한국의 부적격 김치, 고추장, 바비큐 소스 및 관련 제품 몇 가지를 수입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두 차례의 대표적인 통상마찰은 양국 정부가 모두 관세, 비관세 장벽 수단을 통해 서로 간에 물품수입을 금지한 사례이다. 이 두 사례에서 시사하는 것은 국제 무역은 시장의 운영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에도 비관세 장벽은 있다. 대외무역법의 제 2장 제16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 사람들의 건강, 금 또는 은,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수출입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품목은 조례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Table 3> 과 같다. 중국에서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품목을 보면 한중 양국의 쌍무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이 아니다.

#### 4. 비경제적인 요인

앞서 언급하였던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 외에도 비경제적인 요인이 쌍무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한중 양국은 한때 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정치제도, 경제체제 등 환경이 많이 다르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관점이 중국과 다르며 일부 국제사무에 대한 견해, 입장 및 취하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 2021년부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및 지역과 연합하여 소위 탈 중국화 ‘칩 4’<sup>1)</sup>반도체 산업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22년 8월 9일에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입국이자 해외 최대 생산기지이므로(Lee, Hyun Tai, 2022.p.233), 한국은 중국 시장을 잃을까 봐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Bak, Jong-wan, 2022. 미국의 글로벌 패권주의가 주권국가의 내정(內政)과 외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정상적인 통상관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 실증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한 다음 몇 년 동안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 통상관계, 인문 교류가 냉담하게 되었다. 사드 갈등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분쟁에 참여하다가 자칫 최대 수출시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관계가 양국 경제 무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비경제적인 요인이다. 이 외에 중국의 부상(浮上)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Gwak, Deok-hwan, 2004.p.440),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 도약이 한국경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중국의 역량 강화가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순적인 심리가 있다(Kim, Tae-Ho, 2017.p.77). 중국과의 경제 무역은 주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 값싼 원자재 및 노동력을 얻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경분리(政經分離)’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각각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인데 사실상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갈라놓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중 30년간의 경제 무역 지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양국의 정치 외교 관계가 좋을 때에는 쌍무무역액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정치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쌍무무역액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양국의 정치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양국 쌍무무역 성장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1) 칩4: CHIP4 또는 칩포 동맹은 미국이 주도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반도체 생산 ·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맹을 말한다.

## IV. 한중 무역관계 정립을 위한 도전 과제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하려면 장기적인 조화가 필요하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지금은 비록 양국 사이에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이에 걸맞은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한중 양국의 경제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Fan, Zhen-hong, 1999.p.10). 지난 30년간의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교류는 신속 발전기, 고속 성장기, 둔화 조정기를 거쳤다. 그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타당하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장 둔화기의 도래는 불가피하다. 한중 양국은 반드시 장기적인 전략방침을 제정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에 있어 각자의 대외 통상전략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또한,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확대의 의의를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을 동북아시아 지역 내지 세계의 평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중이 함께 걸어온 경제 무역 협력의 30년은 전반적으로 볼 때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경제 무역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건의를 제시한다.

### 1. 무역 불균형 문제 적극 해결

한국은 중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다. 비록 양국 간의 무역이 절대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는 없지만,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쌍무무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이 문제를 중요시해야 하고 진지하게 연구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중 무역 발전에서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적자의 원인을 단순히 한국의 대중(對中) 보호무역정책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한국의 농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중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특히 농산물과 부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하거나 '특별 보호 조항'을 이용하여 시장 접근 장애를 두기보다는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수출상품구조를 조절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한중 무역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현재 각자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중공업이 있는가 하면 한국보다 수준이 낮은 경공업도 있다. 산업 종류는 한국보다 많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볼 때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상품의 과학 기술적인 함량을 높임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 총액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비교 우위가 있으면서도 한국 시장에 맞는 전통 상품 수출은 유지하되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태양광 발전설비 등과 같은 신기술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 비중을 높이고 수출 교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 2. 악성 경쟁 회피

중국은 개혁개방 40여 년간의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한중 무역구조도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 형태로 바뀌고 있다. 양국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동질화 문제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양국 기업은 각자의 산업구조와 무역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현재 세계 경제의 경쟁은 첨단 기술의 경쟁이다. 첨단 기술을 가진 자가 국제 경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은 각자의 우위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토대 위에서 신제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세대교체를 추진해야 한다. 시장 지향적으로 쌍무무역의 구조를 조정하고 산업구조의 형태 전환과 격상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국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첨단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국제 과학 기술 발전의 새로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변화를 관찰하며,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배우고 연구·개발해야 한다. 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신홍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IT),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프리미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및 항공 우주, 해양 장비 등이다(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경제 발전의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전략 2045(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정보기술, 재료과학, 생명과학, 기계 전자학, 에너지, 환경과학 등의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으로 한중 양국이 이를 공동 개발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Liu, Yu, 2021, p.33).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성과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무상통(有無相通)하며 악성 경쟁을 피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정보기술, 금융, 에너지, 철강 등 분야에서 이미 좋은 협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상호 이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 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보다 실질적인 내실에 힘써야 한다. 한국은 중화학, 자동차 등 자본 집약적 산업의 응용 기술 수준이 높은 반면, 중국은 항공 우주, 마이크로 전자, 바이오 공학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쌍무무역의 발전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 3.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하였다. 지금까지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중 FTA 체결 이후 양국 간의 쌍무무역이 기대했던 것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물론 그 동안 한국의 사드(THAAD)배치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시기가 있었고, 또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정책 때문에 인원 이동이 제한되어 서로 간의 왕래가 거의 끊어진 상태로 양국 간의 무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한중 무역협력을 촉진하고 나날이 발전시켜 나갈지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코로나시기에 사람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 방역 관리가 엄격해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상 소비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비록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시작이 한국보다 늦었으나 인구가 많아, 최근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비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현대 무역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Zhao, Hua-wei and Kim, Hag-min, 2019, 3). 한중 FTA 협정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한중 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 간의 쌍무무역을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향일 것이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 비전 목표에 '인터넷 경제발전 추진'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자상거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지지 속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근래 중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삼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운영 모델에 따라 대체로 B2B, B2C, C2C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기업 간 거래인 B2B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B2C, C2C 방식인 직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기업 간의 국경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가 원하는 B2C, C2C 방식의 활성화도 같이 추진한다면 양국의 쌍무무역에 성장의 공간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정보·금융·세관·물류·창고 등의 종합시스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기존의 정책을 협상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실제 업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원할 것이고 양국 세관도 정상적인 경로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이 잘 구비되어야만 지금까지 양국 간에 드나들고 있는 보따리장사 거래가 규정에 맞는 정상 거래가 될 것이다.

#### 4. 상호신뢰 증진

한중 양국은 각자의 역사 발전 과정 중에 서로 다른 사회 제도가 형성되었다. 한국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외교 전략은 앞으로도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런 외교 노선은 이미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한중 양국 관계는 현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지나치게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 한중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긴 세월을 거쳐 차근차근 이루어

가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

첫째,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수교 30년 동안에 어렵게 이룩한 발전성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견해는 대화를 통해 잘 처리하고 갈등을 통제하며 양국의 친선 관계를 여러 분야로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달성한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각 지방정부는 자매결연 도시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왕래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대학, 과학 연구기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중한 우호 협회', '한중 우호 협회', '한중 문화 협회', '21세기 한중 교류 협회', '한중 친선 협회', '한중 문화 우호 협회'(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등 민간단체의 플랫폼 역할이 잘 발휘되어 안정적인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민간 교류를 통해 경제 무역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양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왕래를 해왔으나 반세기 가까이 단절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 각 계층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발달한 당대에는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각자의 국정을 널리 알리고, 특히 30년 동안의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그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터넷상에서 양국 우호 관계에 불리한 부정적인 언론을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형별 정책설명회, 투자 심포지엄, 무역정책 지식 보급 강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서로 관심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민심이 통하는 것이야말로 한중 양국의 정치 외교관계, 경제 무역 관계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 V. 요약 및 결론

올해 8월 24일은 중국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양국은 1992년에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후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수교 3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협력 수준이 높아져 경제 교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수교 이래 2021년의 한중 무역액은 수교 초기 1992년의 무역액의 47배나 올랐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30년간의 상품 무역 발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자면 신속 발전기(1992년~2001년), 고속 성장기(2002년~2011년), 둔화 조정기(2012년~2021년)로 나눌 수 있다. 그간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생산해 낸 상품을 세계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단계가 형성되기도 했고 중국의 산업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로 경쟁하는 분야도 생겨났다.

본문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그간의 쌍무 무역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양국 간 무역액은 1994년의 10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로 돌파하여, 2011년 2,00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3,000억으로 올라가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 무역 역사에서도 드물다. 양국 간의 무역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바라보는 동시에 양국 간에 무역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양국 간 무역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문제, 무역 장벽 설치 문제, 그리고 비경제적인 요인이 쌍무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 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중 무역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도약하기 위해 몇 가지 건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측 적자가 장기화되면 쌍무 무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이 문제를 중요시해야 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의 농부산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측도 큰 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중국 기업 자체가 분발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 한국 수출 상품의 구조를 조절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 40여 년의 발전상에서 보완 관계이던 한중 무역구조에 수출상품의 동질화 문제가 점점 뚜렷해지고 어떤 분야에서는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다. 양국은 각자의 우위 산업을 발전시켜 기술 개발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무상통하여 악성 경쟁을 피해야 한다.

셋째, 한중 FTA가 체결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양국 간의 쌍무무역이 기대했던 것만큼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한중 쌍무무역 성장을 한 층 더 격상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협상을 통해 기존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시기에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 또한 양국 간의 쌍무무역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넷째, 한중 양국은 각자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 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 마련이다.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정치적인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수교 30년 동안에 어렵게 이룩한 발전성과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달성한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각 지방 정부, 기업, 대학, 과학 연구기관, 민간단체는 플랫폼 역할을 잘 발휘하여 안정적인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 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 무역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한중 수교 30년 동안에 경제협력의 성과와 그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간 민심을 상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양국은 좋은 이웃이자 좋은 동반자로서 경제 무역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시키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야 양국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나아가 '인류 운명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어렵게 이룩한 성과를 함께 지키고, 공통점을 취하고 상이점을 보류하며 진지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협력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중 경제 무역 30년의 발전 과정

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 보충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면 및 역량의 부족으로 양국 간의 투자 무역, 서비스 무역에 대해 다루지 못했으며 제시된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세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aidu Baike, (2022), *Korean Agriculture* (Webpage). Available from <https://baike.baidu.com/item/韩国农业/18677240?fr=aladdin>.
- Bak, Jong-wan (2022), *China, It is Difficult to Retaliate against Korean Semiconductors. 'Chip 4' Participation Theory is Gradually Gaining Weight*, CBS news, 2022.08.25. (Webpage). Available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5806950>.
- Fan, Zhen-hong (1999) "Prospects for China-Kore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arly 21st Century",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 12, 3-11.
- Gui, Xiu-e (2017) "Thoughts on Underlying Problems of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Journal of Xi'a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30(3), 118-122.
- Gwak, Deok-hwan (2004) "China's Rise and Korea's Choice", *The Society Of Chinese Studies*, 30, 423-442.
- Han, Bing (2016) "The Path Choice of Bilateral Development of China-Korea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e and Factors", *Intertrade*, 4, 55-60.
- Hu, Jun-fang (2007) "The Cause of Trade Deficit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 Remedies", *International Forum*, 9(2), 64-67.
- Hu, Yi, Shen Ming-hui (2012) "Sino-Korea Trade in the Past 20 Years : Review and Outlook", *Northeast Asia Forum*, 5, 72-79.
- Hu, Yue, Wang Sheng (2019) "Problems' Trends and Solutions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conomic Review*, 5, 102-108.
- Kim, Tae-Ho (2017) "Sino-Korea Relations at a Crossroads and the Lessons of the THAAD Crisis", *New Asia Research Institute*, 24(4), 70-95.
- Korea Customs Service is an excellent web site necessary for the export and import statistic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database of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Webpage). Available from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 Lee, Hyun-Tai (2022)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rade Exchanges with China Over the Past 30 Years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24, 209-257.
- Li, Xiao-feng, Zhang Wei (2006) “The Establishment of Sino-Korean Free Trade Area - An Effectiv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Sino-Korean Trade Friction”, *Intertrade*, 8, 18-22.
- Liu, Yu (2021) “Research on the Industrial Policy in China’s 14th Five-Year Plan and China-Korea Cooperation: Based on Global Value Chains”,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46(6), 21-38.
- Ma, Chang-e (2004) “Sino-Korean Trade Deficit: Situation, Causes and Countermeasures”, *World Economic and Political Forum*, 5, 45-49.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August 2021* (Webpage). Available from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524/sbgx\\_676528/](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524/sbgx_676528/)
- Network documentary, *Look at the countryside in South Korea. It doesn't look like a countryside. At the end of the fields are high-rise housing estates*, March 6, 2020 (Webpage). Available from [https://www.sohu.com/a/377997837\\_120259166](https://www.sohu.com/a/377997837_120259166)
- Piao, Guang-ji (2007) “China-Korea Bilateral Trade : Development and Problems”,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 7, 3-9.
- Su, Ke-wu (2002) “Reasons of and Countermeasures for Constant Growth of Trade Deficit Between China and Korea”,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 1, 54-57.
- Xu, Guang-yao and Liu, Xiao-ning (2013) “Analysis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n Trade Structure Evolution and High-tech Products Trade Characteristics”,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5, 156-160.
- Xu, Wen-jing (2002) “Tracing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rade Information of World Machin electronics*, 11, 21-25.
- Zhang, Chuan-li and He, Shen (2019) “The Evolution and Reason Analysis of Korea's trade policy”, *Technology and Market*, 4, 254-256.
- Zhao, Hua-wei and Kim, Hag-min (2019) “Impacts of Consumer Learning and Consumption Motivation on Consumer Informedness in Cross Border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1(1), 3-33.